

〈전기팔곡〉의 구조와 주제

양희철*

— <차 례> —

1. 서론
2. 부분 텍스트들의 구조와 주제
 - 1) <원풍> 텍스트
 - 2) <춘하추동> 텍스트
 - 3) <신오석> 텍스트
3. 전체 텍스트의 구조와 주제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전기팔곡>을 부분 텍스트들과 전체 텍스트로 나누어, 텍스트별 구조(<원풍> 텍스트의 경우는 배경시간, 배경공간)와 주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부분 텍스트들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풍> 텍스트는 농촌에서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시화)연풍만을 원하며 살던 때의 처사적 삶을 주제로 한다. <춘하추동> 텍스트에서, 배경시간은 춘하추동의 순차적 구조이며, 배경공간은 집(제2, 5수)과 밭(제3, 4수)의 전후가 대칭하는 대칭적 구조이다. 논리적 구조는 농가의 일에 동참할 것을 청유받고, 시험적인 관찰자로 사시 동안 동참하여 만족한 후에, 그 결의 종사를 다짐하는 대칭적 구조이다. 주제는 [농가의 일에 동참할 것을 청유받고, 시험적인 관찰자로 사시 동안 동참하여 만족한 후에, 결의 종사를 다짐하는 삶]이다. <신오석> 텍스트에서, 배경시간은 신오석의 순차적/대칭적 구조이며, 배경공간은 밭으로 나아가는 공간, 때맞춰 점심을 준비하게 시식하는 집의 공간, 집으로 돌아오는 공간 등으로 구성된 대칭적 구조이다. 논리적 구조는 농가의 일을 선도(先導)하는 순차적/대칭적 구조이다. 주제는 [향촌사족의 시적 화자가 농번기의 신오석에 보이는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이다.

*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체 텍스트인 <원풍+춘하추동+신오석>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경시간은 세 단락이 보여주는 순차적/점층적 구조이고, 배경공간은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시화)연풍만을 원하며 사는 처사의 농촌 공간(제1단락), 시험적인 관찰자로 농가의 일에 동참한 공간(제2단락),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공간(제3단락) 등의 순차적/점층적 구조이며, 논리는 세 단락이 보여주는 순차적/점층적 구조이다. 주제는 [향촌사족의 시적 화자가 농가의 일을 선도하게 되는 3단계의 삶]이다.

주제어 | 논리적 구조, 대칭적 구조, 대칭표현, 순차적 구조, 일탈표현, 점층적 구조

1. 서론

<전가팔곡>의 연구는 김사엽이 작품, 작가(이휘일 1619-1672), 창작년대(1664), <서전가팔곡후(書田家八曲後)> 등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¹⁾ 이렇게 시작된 선행 연구들은 작품에 나타난 배경시간의 구조와 작품의 성격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배경시간의 구조를, 김사엽은 서시(序詩)(제1수), 춘하추동의 사시(四時)(제2-5수), 신오석(農午夕)의 삼시(三時)(제6-8수) 등으로 정리를 하였다.²⁾ 이 정리는 김상진, 이상원, 김석희 등에 의해 수용되었다.³⁾ 조동일

1) 김사엽, 『규호시의방과 전가팔곡』, 경대논문집편집위원회, 『영서 고병간 박사 송수기념논총』(『경북대학교 논문집』 4집), 경북대학교, 1960, 671-705쪽.

2) 김사엽(1960), 위의 논문, 679쪽.

3) 김상진은 “제 1연은 序章으로 시간이 나타나지 않으며 2연에서 5연에 걸쳐 春·夏·秋·冬을, 6연에서 8연까지는 晨·午·夕을 노래하였다. 즉, 일년의 시간과 하루의 시간이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김상진, 『조선 중기 연시조의 연구』, 박사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6, 43쪽)로 정리를 하였다. 이상원은 願豐을 서사로, 春夏秋冬을 農家の 四時로, 農午夕을 農家の 하루로 정리를 하였다.(이상원, 『17세기 시조 연구』, 박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8, 147-149쪽) 김석희는 “『전가팔곡』의 구성은 각 수의 끝에 부기된 제목대로 원풍(願豐)을 표백한 서수(序首)에 춘, 하, 추,

은 (움직이며 활동하기 전에 생각부터 가다듬는 유학자의 관습이 그렇게 표출된,) 한 해 시간의 총괄(제1수), 계절 교체의 시간(춘하추동, 제2-5수), 직접 일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의 시간(새벽·낮·저녁, 제6-8수) 등으로 정리를 하였다.⁴⁾ 이 정리의 일부는 권순희에 의해 수정되어 수용되었다.⁵⁾ 송팔성은 “한해의 생산을 계획하는 시간, 사시의 생산 시간, 그리고 하루의 생산 시간이라는 삼단계 구성”으로 정리를 하였다.⁶⁾ 이 정리는 이현자에 의해 거의 그대로 수용되었다.⁷⁾

이 작품의 성격은 김사엽이 ‘농민(農民)이 하여야할 가색(稼穡)의 신고(辛苦)’(제2-5수)와 ‘노역(勞役) 속의 즐거움’(제6-8수)⁸⁾을 언급한 이래, 세 측면에서 정리되어 왔다. 첫째는 전원시조 또는 전가시조의 장르적 성격으로, 조동일, 송팔성, 김홍규 등의 글⁹⁾에서 보인다. 둘째는 작품의 내

동이 각각 1수씩 배치되고, 그 뒤에 새벽, 한낮, 저녁이 또 각각 1수씩 얹혀 있는 형국이다.”(김석희, 『“독락팔곡”과 “전가팔곡”의 거리』, 박노준 외, 『고전시가 읽어읽기·하』, 태학사, 2003, 388쪽.)로 정리를 하였다.

- 4) 조동일, 『조선시대 영남지방 농민시의 세 층위』, 『민족문화논총』 1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농민시의 세 층위』, 『한국시가의 역사와 의식』, 문예출판사, 1993, 160-161쪽.
- 5) “먼저 총론적인 첫수 <顛豐>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시적 화자의 시각이 제시되어 있다. 이어 春, 夏, 秋, 冬 네 수를 통해 田家의 일년 농사를 이야기하고, 시야를 좁혀 晨, 午, 夕 세수를 통해 田家生活의 하루 일과를 노래하고 있다.”(권순희, 『전가시조의 미적 특질과 사적 전개 양상』, 박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0, 76-77쪽.)
- 6) 송팔성, 『사시가의 자연관과 시간의식』, 석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 27쪽.
- 7) “크게 보아 한해의 生産을 計劃하는 시간, 四時의 生産 時間, 그리고 하루의 生産 시간이라는 三段階 構成을 취하고 있다.”(이현자, 『사시에게 연시조에 나타난 강호 자연 인식』, 『시조학논총』 17, 한국시조학회, 2001, 272쪽.)
- 8) 김사엽(1960), 앞의 논문, 679쪽.
- 9) 전원시조 또는 전가시조의 용어로는 ‘전원시조’(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276쪽), “농민시이면서 또한 전원시”[조동일(1990:1993), 앞의 책, 160쪽.], 전원사시가의 한 형태[송팔성(1992), 앞의 논문, 9-30쪽.], ‘전가시조’(김홍규, 『16·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어문논집』 35,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

용이 16세기의 강호가도적 세계로부터 농경 또는 생활의 현장으로 옮겨 왔다는, 농경 또는 생활의 현장과 관련된 성격으로, 여기현, 김홍규, 김상진, 김석회 등의 글¹⁰⁾에서 보인다. 셋째는 향촌 사회의 변화와 관련시켜서 본 이 작품의 사회적 성격으로, 이상원과 권순회의 글¹¹⁾에서 보인다.

이렇게 진행된 선행 연구들은 <전가팔곡>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두가 이 작품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작품론이 아니라는 점에 기인하겠지만, 아직도 두 가지의 정리에서 미흡하다. 하나는 이 작품의 구조이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이 작품의 배경시간의 구조에서 세 단락의 분절을 정리하였지만, 세 단락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 단절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1수의 '원풍(願豊)'과 '한해를 조망하는 계획(計劃)'에서 찾으려 한 시도가 있었지만, 논리성이 너무 약한 것 같다.¹²⁾ 게다가 배경공간의 구조와 논리적 구조는

회, 1996, 237-241쪽.) 등이 보인다.

10) 농경현장 또는 생활현장과 관련된 글로는 “존재의 강호인식은 생활의 현장이며, 그 현실인식의 지향은 강호 그 자체이다.”(여기현, 『강호인식의 한 양상』, 『반교어문연구』 1, 반교어문연구회, 1988, 152쪽.), “이들의 작품에서 강호-세속의 이분법은 부분적으로만 미약하게 남아 있을 뿐, 강호시조의 16세기적 전형을 형성하던 특질은 거의 완전히 퇴화했다.”[김홍규(1996), 앞의 논문, 238쪽], “江湖에서의 자연 완상은 거의 지양한 채 상당 부분을 現實을 노래하는 데 할애한다.”[김상진(1996), 앞의 논문, 49쪽], “『전가팔곡』은 강호가도적(江湖歌道的) 세계에 대한 이러한 마니에리즘적 집착을 어느 정도 벗어난 단계에서 농경적 삶에 좀더 밀착되어 가는 양상을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김석회(2003), 앞의 논문, 392쪽.] 등이 있다.

11) 주장된 내용은, “출사의 길이 막힌 작가가 풍년을 기원하며 농민들과 함께 하는 데서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자긍심을 표현한 작품”[이상원(1998), 위의 논문, 152쪽]과 “<田家八曲>은 田家の 四時와 하루 일과를 통해 扶相助를 통한 안정된 향촌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권순회(2000), 앞의 논문, 80쪽]이다.

12) 김상진은 “<田家八曲>은 일년의 시간과 하루의 시간이 서로 단절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모두 농촌의 생활을 노래하였다는 내용의 공통점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제목으로 묶일 수 있다. 이것을 한데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 1연이다. …(제 1수 인용 생략)… 제목을 ‘願豊’이라고 한 제 1연은 이 작품의 나아갈 바를 제시한다.

검토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조적 측면에서 본 이 작품의 주제이다. 선행 연구들은 앞의 연구사에서 정리한 세 측면의 성격만을 정리하였고,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한 적이 없다. 시각을 바꾸어 보면, 세 단락의 내용 정리가 상당히 미진¹³⁾하고, 논리적 구조를 검토하지 않아서, 이 작품의 구조에 입각한 주제의 제시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배경시간의 구조와 작품의 성격 측면에서 주로 검토되어온 <전가팔곡>을, 이 글에서는 세 구조(배경시간의 구조, 배경공간의 구조, 논리적 구조)와 주제의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작품의 부분들인 <원풍> 텍스트(제1수), <춘하추동> 텍스트(제2-5수), <신오석> 텍스트(제6-8수) 등이 각각 독립성을 갖는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원풍+춘하추동+신오석> 텍스트로 통합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네 텍스트들의 구조(<원풍> 텍스트는 1수이므로, 배경시간과 배경공간으로 대체됨)와 주제를 검토해 보려 한다.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에는 시간의 단위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풍년을 위해서는 모두가 소중한 날들이다. 때문에 일년의 시간이나 하루의 시간이나 ‘願豊’으로 한데 묶일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이어지는 작품에서 願豊이 아닌 단순한 농촌의 생활을 묘사하는데 머무르고 있지만 이들 작품에서 주는 평안한 이미지를 통해 풍년을 예감할 수 있다.”(밀줄 필자[김상진(1996), 앞의 논문, 45쪽]에서와 같이, 밀줄친 부분에서 논리성이 미진함을 인정하면서 설명을 하였다. 이현자는 앞의 인용에서 밀줄친 부분의 앞에 있는 두 문장(“제목을 ‘願豊’이라고 …… 묶일 수 있는 것이다.”)의 내용과 “첫 수가 한해를 조망하는 計劃”[이현자(2001), 앞의 논문, 275쪽]이란 점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2-8수에서, 어떤 표현들이 제2-8수를 제1수의 원풍으로 묶을 수 있게 하는가와, 제1수가 ‘한해를 조망하는 計劃’인가는 좀더 검토를 요한다.

13) 내용 정리에서 가장 미진한 점은 셋이다. 첫째는 제1수가 어느 시인들의 어떤 의미에서, “서시”, “서장”, “한 해 시간의 총괄”, “한해의 생산을 계획하는 시간”, “한해를 조망하는 計劃”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증하지 않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둘째 단락(제2-5수)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來年희 봄 온다 흥겨운 결의 從事 ㅎ리라”(제5수 종장)에 대한 해석과 정리가 거의 없거나 미진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셋째 단락(제6-8수)에서 보이는 시적 화자의 선도성(先導性)에 대한 해석과 정리가 없다는 것이다.

2. 부분 텍스트들의 구조와 주제

이 장에서는 이 작품의 부분들인 <원풍> 텍스트, <춘하추동> 텍스트, <신오석> 텍스트 등의 구조(<원풍> 텍스트의 경우는 배경시간과, 배경공간)와 주제를 차례로 정리하려 한다.

1) <원풍> 텍스트

<원풍>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世上의 버린 몸이 畎畝의 늘거가니
 밋겻 일 내 모르고 흐는 일 무스 일고
 이 中의 憂國誠心은 年豊을 願호노라(제1수, 願豊)

먼저 배경시간을 보자. 배경시간은 초장과 종장으로 보면, 세상이 시적 화자를 버려서 견무(畎畝)에서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처사로 늙어 가면서 (시화)연풍(時和)年豊을 원하는 때이다. 이 경우에 ‘견무’는 ‘밭도랑[畎]과 밭이랑[畝]’의 기본 의미(축자적 의미)와, 이 의미가 전의(轉意)된 ‘전간(田間), 전원(田園), 민간(民間)’ 등의 의미를 갖는다.¹⁴⁾ 이 의미들 중에서 어느 의미를 따라도, 시골이나 농촌을 의미하지, 농인(農人 또는 農夫)이 농사를 직접 짓는 농가의 일을 하는 경작지(耕作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¹⁵⁾ 이런 ‘견무’의 의미를 고려하여, 초장을 읽으면, 세상

14) 『中文大辭典』(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편, 대북: 중국문화대학출판부, 1973)의 ‘畎’ 조에서 ‘畎畝’를 보면, 다음의 글들이 나온다. “畎畝: 畎畝本各成義 並舉以稱田間. 畎畝之中: 田園之間 民間也. 畎畝之忠: 民間所盡之忠誠也”. 이 인용에서 보면, ‘畎畝’의 의미는 ‘畎과 畝’, ‘田間’, ‘田園’, ‘民間’ 등이다.

15) 이런 사실은 이 용어들의 의미에서 알 수 있다. ‘밭도랑[畎]과 밭이랑[畝]’에서, 밭도랑은 밭두둑(밭과 밭의 사이에 있는 두둑)과 첫 번째 밭이랑 사이에 있는 도랑을 말

이 버린 시적 화자가 농촌에 들어서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처사로 늙어감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은 두 가지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하나는 중장과 종장의 의미이다. 중장에서는 “밭겉 일 내 모르고 흐는 일 무스 일고”라고 자문하고, 종장에서 “이 中의 憂國誠心은 年豊을 願호노라” 답하고 있다. 이 표현에서 “年豊을 願호노라”의 주어가 ‘憂國誠心’이란 점에서, “年豊을 願호노라”는 “(時和)年豊을 願호노라”의 표현이다. 이 표현은 농사를 지으며 농촌에 사는 농인이 하는 표현이 아니라, 관리나 처사가 하는 표현이다. 다른 하나는 이휘일이 그의 나이 43세(1661년)부터 영해 저곡리(楮谷里)에 복거(卜居)하여 처사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다. <행장>을 보면, 독서를 하면서, 옥천(玉川)의 계곡과 뇌택(雷澤)의 물가를 배회하는 처사적 삶을 보여준다.¹⁶⁾

이상과 같은 점들로 보아, 제1수의 배경시간은 시적 화자가 견무(畎畝) 즉 농촌에서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처사로 늙어가면서 (시화)연풍 [(時和)年豊]을 원하는 때¹⁷⁾로 정리할 수 있다.

한다. 이런 밭도랑과 밭이랑은 농부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경작지(밭이랑 및 밭도랑)와는 구분되는 장소이다. 다음으로 ‘전간(田間)’과 ‘전원(田園)’은 ‘밭의 사이’와 ‘밭과 동산’이란 뜻으로,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이나 교외(郊外)를 이르는 밭이랑 점에서, 이 용어들 역시 농부가 농사를 직접 짓는 경작지와는 구분되는 장소이다. ‘민간’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16) “歲辛丑 始卜居于府西楮谷里 以便兩地省間 因結蘆巖間 廣栽竹木 號以冥樓 讀書其間 又於谷口下流 得一佳處 名其流曰玉川 名其澤曰雷澤 有時徜徉”(이휘일, <행장>, 『존재집』 권8, 『한국문집총간』 124, 민족문화추진회, 1993, 83쪽).

17) 이 시기는 이휘일이 저곡리에 복거하기 시작한 1661년과 그 다음 해인 1662년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쓴 1664년과 전가의 농인 생활을 시험적 관찰자로 체험한 춘하추동의 1년(이 1년은 다음 절에서 검토할 춘하추동의 1년으로 1663년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절인 ‘2’) 참조.)을 염두에 두면, 이휘일이 ‘견무’에서 늙어가고 있던 시기는 1661-1662년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배경공간을 보자. 배경공간은 앞의 배경시간에서 언급한 내용에서와 같이, 시적 화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 농가의 일에 종사하는 공간(농촌)이 아니라, 처사적 삶을 사는 농촌 공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시적 화자가 늙어가는 ‘견무’가, 농부가 직접 농가의 일에 종사하는 농촌이 아니라, 처사들이 소일하는 농촌이란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원풍> 텍스트의 주제를 보자. 배경시간과 배경공간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이 텍스트의 주제는 [농촌에서 살지만,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시화)연풍[時和]年豊]을 원하는 처사적 삶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원풍>의 텍스트는 독립된 배경시간, 배경공간, 주제 등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텍스트는 독립적으로 수용될 수도 있었다고 본다.

2) <춘하추동> 텍스트

제2-5수로 구성된 <춘하추동> 텍스트를 보자.

農人이 와 이로되 봄 왔네 바티 가새
 압 집의 쇼보 잡고 뒷 집의 짜보 내네
 두어라 내 집 부디 흥라 늣 흥니 더욱 조타(제2수, 春)

여름날 더운 적의 단 짜히 부리로다
 밧고랑 밭자 흥니 쏘 흘너 짜희 듯네
 어스와 粒粒辛苦 어너 분이 알오 실고(제3수, 夏)

구을희 곡석 보니 뉘흙도 뉘흙세고
 내 힘의 날운 거시 머거도 마시로다
 이 밧기 千駟萬鍾을 부려 무슴 흥리오(제4수, 秋)

밤의란 스출 쇠고 나죄란 썬를 부여
 草家집 자바 밉고 農器점 츠려스라
 來年희 봄 온다 흐거든 결의 從事 흐리라(제5수, 冬)

이 <춘하추동> 텍스트는 배경시간에서 순차적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제2-5수의 내용과 소제목이 보여주는 춘하추동의 순차적 구조이다.

이 텍스트의 배경공간은 대칭적 구조를 보여준다. 제2수의 배경공간은 초장(“農人이 와 이로디 봄 왓네 바티 가새”)으로 보면 집이고, 중장(“압 집의 쇼보 잡고 뒷 집의 싸보 내네”)으로 보면 마을이다. 그리고 종장인 “두어라 내 집 부디 흐라 늣 흐니 더욱 조타”는 ‘마을’에서 한 말인지 ‘밭’에서 한 말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제2수의 배경공간은 집, 마을, (밭)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3수의 배경공간은 김매기를 하는 밭의 공간이다. 제4수의 배경공간은 익은 곡식을 볼 수 있는 밭의 공간이다. 제5수의 배경공간은 초장(“밤의란 스출 쇠고 나죄란 썬를 부여”)과 중장의 전반부(“草家집 자바 밉고”)로 보면 집이다. 그리고 중장의 후반부인 “農器점 츠려스라”는 ‘집’과 ‘마을’ 중에서 어느 하나로 정하는 것이 다소 애매하다. 이런 점에서 제5수의 배경공간은 집, (마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제2-5수의 배경공간은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제2수 : 집, 마을, (밭)

제3수 : 밭

제4수 : 밭

제5수 : 집, (마을)

이 정리에서, 괄호를 친 제2수의 ‘밭’과, 제5수의 ‘마을’은 다소 유동적이다. 이 유동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집’과 ‘밭’만을 보면, 제2-5수는 그

전후가 완전히 대칭하는 대칭적 구조¹⁸⁾이다. 이런 점에서, 제2-5수의 배경공간은 집(제2, 5수)과 밭(제3, 4수)의 전후가 대칭하는 대칭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에는 <춘하추동>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를 보자.

제2수(춘)에서는 농인으로부터 농가의 일(봄의 밭갈기)에 동참할 것을 청유받고, 그 농가의 일(봄의 밭갈기)에 시험적 관찰자로 동참하여 상부상조에서 좋음, 즉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노래하였다. ‘가새’는 청유형 ‘갑시다’의 옛말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보면, 초장인 “農人이 와 이로되 봄 왔너 바티 가새”는, 농인이 시적 화자를 농가 일의 시작인 봄의 밭갈기에 동참할 것을 청유하는 내용이 된다. 그런데 이 청유는 문자적으로만 보면, 농가 일의 시작인 봄의 밭갈기에 동참할 것을 청유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별화의 제유법으로 보면, 이 청유는 농가의 일에 동참할 것을, 그 부분인 봄의 밭갈기에 동참할 것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청유는 농가의 일에 동참할 것을 청유한 것으로도 이해된다. 그리고 이 청유에 따라 시적 화자가 보인 제2-5수의 동참은 시험적(試驗的)인 관찰자¹⁹⁾의 입장에서 보인 동참(同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시적 화자는 제5수의 중장인 “來年회 봄 온다 흐거든 결의 從事 흐리리”에서 보듯이,

18) 이 대칭적 구조의 기반이 된 제2수 중장의 ‘집’과 제5수 중장의 ‘집’은 제3수와 제4수의 가운데 공간을 대칭축으로 하는 <도산육곡>식 대칭표현이다. (양희철, 『대칭표현을 포함한 연시조들의 유형성: <도산육곡>식과 <방진산군수가>식의 대칭표현을 중심으로』, 『배달말』 64, 배달말학회, 2010, 91-97쪽.) 이 대칭표현은, 이 텍스트의 대칭적 구조를 암시하고, 암시한 대칭적 구조와 더불어, 이 텍스트의 독립성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대칭표현과 대칭적 구조는 <원풍+춘하추동+신오석> 텍스트에서는 제2-5수의 단락성, 즉 단락의 구획성을 보여준다.

19) 이 동참은 “右田家八曲者 楮谷病隱之所作也 病隱非力於農者 久伏畎畝 熟知稼穡之事 因其所見 而發之於歌 …”(이휘일, <서전가팔곡후>, 『존재집』 권4, 『한국문집총간』 124, 민족문화추진회, 1993, 51쪽.)로 보아, 그리고 제2-5수의 표현으로 보아, 농인보다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인 동참으로 판단된다.

사시의 농가의 일에 모두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하여 만족한 다음에야, 농가의 일에 결의(決意) 종사(從事)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장에 이어서 시적 화자는 농가의 일을 준비하는 중장의 “압 집의 쇼보 잡고 뒷 집의 사보 내넉”의 상황을 보고, 중장에서 “두어라 내 집 부디 흐라 늣 흐니 더욱 조타”에서 상부상조에서 좋음, 즉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노래하였다.

제3수(하)에서는 시적 화자가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여름의 김매기)에서 신고(辛苦)와 곡식 알알의 가치를 새삼 인식하는,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보여준다. 농가의 일(여름의 김매기)에서 느끼는 신고(辛苦)는 초장(“여름날 더운 적의 단 짜히 부리로다”)과 중장(“밭고랑 밭자 흐니 썸 흘너 짜희 듯네”)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곡식 알알의 가치를 새삼 인식하는 부분은 중장의 “어스와 粒粒辛苦 어너 분이 알으실고”이다. 이 곡식 알알의 가치를 인식하는 내용도, 새로운 가치의 인식이라는 점에서는 만족감의 표현이다.

제4수(추)에서는 시적 화자가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가을의 수확)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보여준다. 수확과 만족감은 중장(“내 힘의 닐운 거시 머저도 마시로다”)에서 일차로 보여준다. 그리고 만족감은 이차로 초장(“마을회 곡석 보니 도흠도 도흠세고”)과 중장(“이 밭과 千駟萬鍾을 부려 무슴 흐리오”)에서 보여준다.

제5수(동)에서는 시적 화자가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겨울의 초가지붕이기와 농기 수리)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내년부터 농가의 일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는 삶을 노래하였다. 초가지붕이기는 초장(“밤의 란 스출 쇠고 나죄란 썬을 부여”)과 중장의 전반부(“草家집 자바 밍고”)에서 알 수 있다. 농기 수리와 만족감은 “農器점 츠려스라”에서 알 수 있다. 특히 만족감은 문면에 나와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츠려스라’의

감탄이 이를 말해준다. 그리고 내년부터 농가의 일에 결의 종사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은 종장인 “來年희 봄 온다 흐거든 결의 從事 흐리라”에서 알 수 있다. 이 다짐은 제2-5수에서 보여준 농가의 일에 동참한 것이 시험적(試驗的)인 관찰자로 동참(同參)한 것임을 말해주며, 제2수에서 농인이 와서 시적 화자에게 농가의 일에 동참할 것을 청유한 것에 대한 결론적인 결정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정리한 각 단시조별 주제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수 : 농인으로부터 농가의 일에 동참할 것을 청유받고,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봄의 밭갈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삶

제3수 :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여름의 김매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삶

제4수 :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가을의 수확)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삶

제5수 :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겨울의 초가지붕이기와 농기 수리)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내년부터 농가의 일에 결의 종사할 것을 다짐하는 삶

이 정리에서 보듯이, 제2수와 제5수는 대칭적이다. 즉 제2수는 농인으로부터 농가의 일에 동참할 것을 청유받은 것이고, 제5수는 이 청유에 대한 결의 종사를 다짐하는 것이다. 그것도 제2-5수의 사시의 농가의 일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바탕으로, 청유를 받아들이는 결의 종사의 다짐이다. 이런 점으로 보면, 제2-5수는 그 전후가 대칭하는 대칭적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대칭적 구조로 보아, <춘하추동> 텍스트의 주제는 [향촌사족의 시적 화자가 농인으로부터 농가의 일에 동참할 것을 청유받고, 사시

동안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마지막에 농가의 일에 결의 종사할 것을 다짐하는 삶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춘하추동> 텍스트는 배경시간의 구조, 배경공간의 구조, 논리적 구조 등에서 독립성을 보이고, 동시에 독립적인 주제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 <춘하추동> 텍스트는 독립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고 정리한다.²⁰⁾

3) <신오석> 텍스트

<신오석> 텍스트(제6-8수)를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면서 보자.

새배 빛 나자 나셔 百舌이 소릭 흐다
일거라 아희들아 밧 보러 가자스라
밤 스이 이슬 귀운에 언마나 기런느고 흐노라(제6수, 晨)

보리밥 지어 담고 도트랏 김을 헝여
빅골논 農夫들을 趁時에 머겨스라
아히야 헝 그릇 올녀라 親히 맛바 보내리라(제7수, 午)

西山에 히 지고 풀 굿테 이슬 난다
호뽀를 돌너 메고 덜 디여 가자스라
이 미의 즐거운 뜻을 닐러 무슴 헝리오(제8수, 夕)(밑줄 필자)

20) 이 독립적 수용의 가능성은 “제 2곡부터 제 5곡까지는 춘·하·추·동의 사계절의 추이에 따른 강호의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이 네 수의 노래만을 따로 떼어 놓으면 사시가라 이름지을 수 있을 것이다.”[여기현(1988), 앞의 논문, 151쪽.]로 언급되기도 했다.

이 <신오석> 텍스트는 대칭적 구조를 암시하는 대칭표현과 반복의 후미 전환을 보여준다. 이를 먼저 정리하기 위해, 대칭표현과 일탈표현을 보자.

첫째로, ['-나다'(제6수)—대칭축(제7수)—'나다'(제8수)]의 대칭표현이다. 제6수 초장 끝의 '한다'와 제8수 초장 끝의 '난다'는 제7수를 대칭축으로 '-나다'가 대칭하는 대칭표현을 보여준다.

둘째로, ['가자스라'(제6수)—대칭축(제7수)—'가자스라'(제8수)]의 대칭표현이다. 제6수 중장 끝의 '가자스라'와 제8수 초장 끝의 '가자스라'는 제7수를 대칭축으로 '가자스(/스)'가 대칭하는 대칭표현을 보여준다.

셋째로, 제8수 중장 끝의 '허리오'의 일탈표현이다. 제6수 중장 끝의 '호노라'와 제7수 중장 끝의 '보내리라'에서는 종결어미 '-라'를 반복한다. 이 반복은 제8수 중장 끝에서도 '-라'의 반복을 기대하게 하는데, 제8수 중장 끝의 '허리오'는 이 기대를 벗어난 일탈표현을 보인다. 이 일탈은 반복의 지속을 중지하였다는 점에서 종결을 의미한다.

이상의 두 대칭표현²¹⁾과 하나의 일탈표현은 <신오석> 텍스트의 종결표현이 대칭표현에 기반한 대칭형과, 반복의 후미 전환에 기반한 반복의 후미 전환형²²⁾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대칭표현은, <신오석> 텍스트의 구조가 대칭적 구조임을 암시하고, 암시한 대칭적 구조와 더불어, 이 텍스트에서는 <신오석> 텍스트의 독립성을 보여주고, <원풍+춘하추동+신오석> 텍스트에서는 제6-8수의 단락성, 즉 단락의 구획성을 보여준다.

이제 배경시간의 구조를 보자. <신오석> 텍스트의 배경시간은 순차적/대칭적 구조로 되어 있다. 신(제6수), 오(제7수), 석(제8수) 등은 시간상

21) 이 대칭표현들과 같이, 가운데 있는 단시조를 대칭축으로 하는 대칭표현은 <고산구곡가>식 대칭표현이다. (양희철, 『<고산구곡가>식 대칭표현형 연시조들의 유형성과 개별성』,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회, 2010, 169-200쪽.)

22) 양희철, 『연시조 종결의 표현 유형』, 『인문과학논집』 41,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0, 144-149쪽.

일단 순차적이다. 동시에 이 신, 오, 석 등은 오(제7수)를 대칭축으로 신(제6수)과 석(제8수)이 대칭하는 대칭적 구조이다. 이런 점에서 <신오석> 텍스트의 배경시간은 신오석의 순차적/대칭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에는 배경공간의 구조를 보자. 제6수의 배경공간은 집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공간이고, 제7수의 배경공간은 때맞춰 점심을 준비하게 시식하는 집의 공간이며, 제8수의 배경공간은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공간이다. 이런 <신오석> 텍스트의 배경공간은 제7수의 때맞춰 점심을 준비하게 시식하는 집의 공간을 대칭축으로, 제6수의 집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공간과, 제8수의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공간이 대칭한다. 이런 점에서 <신오석> 텍스트의 배경공간은 대칭적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신오석>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는 대칭적 구조이다. 제6수에서는 작물이 밤이슬에 얼마나 컸는가를 보기 위해 밭에 함께 나아가자고 청유한다. 이는 즐거움을 수반한 청유를 통해, 농가의 일을 선도(先導)²³⁾하는 삶이다. 제7수는 종장의 “아히야 흐 그룻 올녀라 靚히 맛바 보내리라”에 서와 같이, 시식을 통해 때맞춘 점심의 준비를 선도하고 있다. 이 역시 즐거움을 수반한 점심을 준비하게 하기를 통해,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이다. 제8수는 저녁에 집으로 함께 돌아가자는 청유를 하면서, 그 중의 wmf 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 역시 즐거움을 수반한 청유를 통해,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이다. 이런 각수별 주제는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제6수 : 즐거움(밤새 큰 작물을 보기)을 수반한, 밭에 함께 나아가기의 청유를 통해,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

23) 이 先導의 위치는 “감농자(監農者) 내지 독농자(督農者)의 자리”[김석희(2003), 앞의 논문, 389쪽]로 볼 수도 있다.

제7수 : 즐거움(시식)을 수반한, 때맞춰 점심을 준비하게 하기를 통해,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

제8수 : 즐거움(즐거운 뜻)을 수반한, 집에 함께 돌아가기의 청유를 통해,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

이 정리에서 볼 수 있듯이, 밭에 함께 나아가기의 청유, 때맞춘 점심을 준비하게 하기, 집으로 함께 돌아가기의 청유 등은 순차적이고, 동시에 대칭적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신오석>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는 순차적/대칭적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다.

앞의 논리적 구조로 보아 이 텍스트의 주제는 [향촌사족의 시적 화자가 농번기의 신오석에 보이는,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신오석> 텍스트는 그 배경시간의 구조, 배경공간의 구조, 논리적 구조 등에서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며, 독립된 주제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이 텍스트는 독립된 텍스트로 수용될 수 있었다고 정리한다.

3. 전체 텍스트의 구조와 주제

앞장에서 살펴듯이, <원풍> 텍스트, <춘하추동> 텍스트, <신오석> 텍스트 등은 독립성이 매우 강하여, 독립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조와 주제의 차원에서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 세 텍스트들은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로 통합된 <원풍+춘하추동+신오석> 텍스트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 이 장에서는 이 통합된 <원풍+춘하추동+신오석> 텍스트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대칭표현을 먼저 정리하고, 이어서 구조와 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대칭표현

대칭표현들을 보기 위하여, 밑줄 친 부분들에 유의하면서 작품을 다시 보자.

世上의 브린 몸이 畎畝의 늘거가니
맞껏 일 내 모르고 흥논 일 무스 일고
이 中의 憂國誠心은 年豊을 願흥노라(제1수, 願豊)(제1단락)

農人이 와 이로되 봄 왓니 바티 가새
압 집의 쇼보 잡고 뒷 집의 짜보 내니
두어라 내 집 부디 흥랴 늡 흥니 더욱 조타(제2수, 春)

여름날 더운 적의 단 짜히 부리로다
맞고랑 미자 흥니 쏘 흘너 짜희 듯네
어스와 粒粒辛苦 어너 분이 알으실고(제3수, 夏)

그을희 곡석 보니 도흠도 도흘세고
내 힘의 날운 거시 머거도 마시로다
이 밧기 千駟萬鍾을 부려 무슴 흥리오(제4수, 秋)

밤의란 스츨 쇠고 나죄란 썬를 부여
草家집 자바 미고 農器점 츠려스라
來年희 봄 온다 흥거든 결의 從事 흥리라(제5수, 冬)(제2단락)

새배 밧 나자 나셔 百舌이 소리 흥다
일거라 아희들야 밧 보러 가자스라
밤 스이 이슬 괴운에 언마나 기런논고 흥노라(제6수, 晨)

보리밥 지어 담고 도트랏 깁을 햏여

빅골논 農夫들을 趁時에 머겨스라

아히야 햏 그릇 올녀라 親히 맛바 보내리라(제7수, 午)

西山에 햏 지고 플 굿테 이슬 난다

호뫼를 돌너 메고 덜 딕여 가자스라

이 ㅁ의 즐거운 삿을 닐러 무슴 햏리오(제8수, 夕)(제3단락)(밑줄 필자)

우선 제6수를 대칭축으로 그 전후가 대칭하는 대칭표현들을 보자.

첫째로, [-ㄹ -여'(제5수)—대칭축(제6수)—'ㄹ -여'(제7수)]의 대칭표현이다. 제5수의 초장 끝인 '썩을 부여'와 제7수의 초장 끝인 '깁을 햏여'는 제6수의 '소리 햏다'를 대칭축으로 'ㄹ -여'의 대칭표현을 보여준다.

둘째로, [-'여스라'(제5수)—대칭축(제6수)—'여스라'(제7수)]의 대칭표현이다. 제5수의 중장 끝인 '츄려스라'와 제7수의 중장 끝인 '머겨스라'는 제6수의 '가자스라'를 대칭축으로 '-여스라'의 대칭표현을 보여준다.

셋째로, [-'리라'(제5수)—대칭축(제6수)—'리라'(제7수)]의 대칭표현이다. 제5수의 중장 끝에 온 '햏리라'와 제7수의 중장 끝에 온 '보내리라'는 제6수의 중장 끝에 온 '햏노라'를 대칭축으로 '-리라'의 대칭표현을 보여준다.

넷째로, ['무슴 햏리오'(제4수)—대칭축(제6수)—'무슴 햏리오'(제8수)]의 대칭표현이다. 제4, 8수의 중장 끝에는 '무슴 햏리오'가 오는데, 이 두 표현들은 제6수의 '기런논고 햏노라'를 대칭축으로 대칭표현을 보여준다.²⁴⁾

이 네 대칭표현들은 제6수를 대칭축으로 제5수(제2단락)와 제7수(제3

24) 양희철(2010), 『<고산구곡가>식 대칭표현형 연시조들의 유형성과 개별성』, 앞의 책, 193-194쪽.

단락)가 대칭하고, 제4수(제2단락)와 제8수(제3단락)가 대칭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대칭표현들은 제2-5수(제2단락)와 제6-8수(제3단락)를 하나로 묶고 있다. 즉 대칭축인 제6수를 전후로, 제2단락과 제3단락을 대칭시켜서, 하나의 텍스트로 볼 수도 있게 하고 있다. 이 기능은 이 작품이 보이는 하나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제1단락과 제2, 3단락을 하나로 묶는 대칭표현을 보자.

다섯째로, [‘이 中의’(제1수)—대칭축(중앙)—‘이 中의’(제8수)]의 대칭표현이다. 이 대칭표현은 첫수와 끝수의 ‘이 中의’를 대칭시킨 표현으로 제8수가 종결임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이 대칭표현은 이 종결의 기능 외에, 대칭을 이용하여, 제1단락과 제2, 3단락을 하나로 묶는 기능도 한다.

이렇게 앞에서 정리한 다섯 대칭표현들은, 제1, 2, 3단락을 각각 <원풍> 텍스트, <춘하추동> 텍스트, <신오석> 텍스트로 보는 동시에, 하나의 텍스트, 즉 <원풍+춘하추동+신오석> 텍스트로 보게 묶는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이 작품은 별개의 세 작품들을 책으로 내면서 한 작품처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세 개의 개별 텍스트와 <원풍+춘하추동+신오석> 텍스트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2) 구조와 주제

먼저 이 텍스트에서 배경시간의 구조를 검토해 보자. 제2, 3장에서 정리한 <원풍> 텍스트, <춘하추동> 텍스트, <신오석> 텍스트 등의 배경시간들을 단락의 차원에서 함께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수 : 처사로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시화)연풍을 원하던 때(제1단락)

제2수 : 농인으로부터 농가의 일에 동참할 것을 청유받고, 시험적인 관찰

- 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봄의 밭갈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던 때(춘)
 제3수 :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여름의 김매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던 때(하)
 제4수 :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가을의 수확)에서 만족감을 느끼던 때(추)
 제5수 :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겨울의 초가지붕이기와 농기 수리)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내년부터 농가의 일에 결의 종사할 것을 다짐하던 때(동)(제2단락)
 제6수 : 농가의 일(일하러 밭에 나아가기)을 선도하는 때(신)
 제7수 : 농가의 일(때맞춰 점심을 준비하게 시식하기)을 선도하는 때(오)
 제8수 : 농가의 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을 선도하는 때(석)(제3단락)

이 정리에서 보듯이, 배경시간은 3단락으로 정리된다. 즉 제1단락(제1수), 제2단락(제2-5수), 제3단락(제6-8수) 등이다. 이 단락으로 보면, 이 텍스트의 배경시간은 순차적/점층적 구조이다. 즉 제1단락은 처사로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시화)연풍[(時和)年豐]을 바라던 때이다. 제2단락은 농인으로부터 농가의 일에 동참할 것을 청유받고,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하여 만족하고, 그 동참을 결의 종사 하겠다고 다짐하던 때이다. 제3단락은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때이다. 그리고, 제2단락은 그 내부에서는 순차적 구조를 보이고, 제3단락은 그 내부에서는 순차적/대칭적 구조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텍스트의 배경시간은, 처사로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시화)연풍을 바라던 때(제1단락), 시험적인 관찰자로 농가의 일에 동참하여 만족하고 결의 종사를 결심하던 때(제2단락, 춘하추동의 순차적 구조),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때(제3단락, 신오석의 순차적/대칭적 구조) 등으로 구성된 순차적/점층적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다.(세 단

락의 내부에 포함된 구조까지를 계산하면, 이 텍스트의 배경시간은 단일 구조가 아니라 복합구조이다.)

이 배경시간의 구조는 다른 배경시간의 구조도 함축하고 있다. 신오석야(또는 신주석야)와 춘하추동은 사시(四時)의 두 의미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흔히 신오석야를 춘하추동에 견준다. 이는 신오석야로 춘하추동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말이다.²⁵⁾ 이 견증을 이 텍스트는 함축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즉 제2단락(제2-5수, 춘하추동)은 제3단락(제6-8수, 신오석)을 춘하추동의 차원에서 ‘춘하추’로 바꾸어 보게 유도하고 있다. 이 유도를 따라, 제6-8수의 ‘신오석’을 ‘춘하추’로 바꾸어 보면, 이 배경시간의 구조가 함축한 배경시간의 구조는 ‘춘(제2수)—하(제3수)—추(제4수)—동(제5수)—춘(제6수)—하(제7수)—추(제8수)’의 구조가 된다. 이 함축된 배경시간의 구조는 질서와 균형이 잡힌 순차적/대칭적 구조²⁶⁾로, 질서와 균형이

25) 이런 사실은 <고산구곡가>의 표현에서 발견된다. <고산구곡가>의 시어들에서는, “아침(제2수), 봄(제3수), 여름(제4수), 오후(제5수), 황혼(제7수), 가을(제8수), 밤(제9수), 겨울(제10수)” 등과 같이 두 사시가 혼용된 구조만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간들에서 신오석야와 춘하추동의 두 사시가 각각 상대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으면, “봄(제2수), 봄(제3수), 여름(제4수), 여름(제5수), 가을(제7수), 가을(제8수), 겨울(제9수), 겨울(제10수)” 등과, “아침(제2수), 아침(제3수), 낮(제4수), 낮(제5수), 저녁(제7수), 저녁(제8수), 밤(제9수), 밤(제10수)” 등에서와 같이 정제된 시간의 구조를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두 사시의 상호 상징을 의미한다. (양희철, 『<고산구곡가>의 구조 연구』, 『어문연구』 68, 어문연구학회, 2011, 287-289쪽.)

26) 이 함축된 배경시간의 구조가 순차적/대칭적 구조라는 사실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 다음의 세 배경시간을 비교해 보자.

순서	제2수	제3수	제4수	제5수	제6수	제7수	제8수
배경시간1	춘	하	추	동	신	오	석
배경시간2	춘	하	추	동	춘	하	추
배경시간3	춘하추			동	춘하추		

이 표의 배경시간1에서 ‘춘하추동’과 ‘신오석’은 각각 순차적이고 대칭적이다. 그러나 배경시간1의 전체인 ‘춘하추동신오석’은 ‘춘하추동’과 ‘신오석’이 시간의 층위가 달라, 질서화가 부분적이며 균형이 잡히지 않은 구조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배경시간2에서

잡히지 않은 ‘춘하추동신오석’의 순차적/점층적 구조를 보완한다.²⁷⁾

이번에는 이 텍스트의 배경공간이 보여주는 구조를 보자. 앞에서 살핀, 각 텍스트별 배경공간을 단락의 차원에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수 :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처사적 삶을 사는 공간(농촌)(제1단락)
- 제2수 :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봄의 밭갈기)의 공간(집)
- 제3수 :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여름의 김매기)의 공간(밭)
- 제4수 :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가을의 수확)의 공간(밭)
- 제5수 :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겨울의 초가지붕이기와 농기 수리)의 공간(집)(제2단락)
- 제6수 :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공간(집에서 밭으로 나아가는 공간)
- 제7수 :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공간(때맞춰 식사를 준비하게 시식하는 집의 공간)
- 제8수 :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공간(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공간)(제3단락)

이 정리에서 보면, 세 단락들은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처사적 삶을 사는 공간(농촌)(제1단락),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의 공간(제2단락),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공간(제3단락) 등으로 순차적이고 점층적인 구조를 보인다.

‘춘하추동춘하추’는 순차적이어서, 전체적으로 질서가 잡힌 구조를 보여준다. 그리고 배경시간2에서 ‘춘하추’를 한 단위로 묶은 배경시간3은 제5수의 ‘동’을 대칭축으로 그 전후의 ‘춘하추’가 대칭하여, 균형이 잡힌 구조를 보여준다. 이런 사실들로 볼 때에, 배경시간2는 질서와 균형이 잡힌 순차적/대칭적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다.

27) 시적 화자가 이 텍스트의 제6-8수에서 신오석의 시간만을 노래한 것은 시적 화자가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이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것임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에, 시적 화자는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을 ‘신오석’의 짧은 시간에서 ‘춘하추’의 긴 시간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 확대는 결국 시적 화자가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을 완성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에는 논리적인 구조를 보자. 앞에서 정리한 제1-8수의 단시조별 주제를 읊기면 다음과 같다.

- 제1수 :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시화)연풍을 원하는 처사적 삶(제1 단락)
- 제2수 : 농인으로부터 농가의 일에 동참할 것을 청유받고,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봄의 밭갈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삶
- 제3수 :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여름의 김매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삶
- 제4수 :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가을의 수확)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삶
- 제5수 :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겨울의 초가지붕이기와 농기 수리)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내년부터 농가의 일에 결의 종사할 것을 다짐하는 삶(제2단락)
- 제6수 : 즐거움(밤새 큰 작물)을 수반한, 밭에 함께 나아가기의 청유를 통해,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
- 제7수 : 즐거움(시식)을 수반한, 때맞춰 점심을 준비하게 하기를 통해,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
- 제8수 : 즐거움(즐거운 뜻)을 수반한, 집에 함께 돌아오기의 청유를 통해,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제3단락)

이 정리에서, 이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 역시 3단락의 순차적/점층적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단락(제1수)에서는 농촌에 살지만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시화)연풍[時和年豐]을 원하는 처사적 삶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제2단락(제2-5수)에서는 농인으로부터 농가의 일에 동참할 것을 청유받고, 사계절 동안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마지막에 결의 종사하겠다고 다짐하는 삶을 보여준다. 이 제2단

락은 제1단락에 비해 시험적인 관찰자로나마 농가의 일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순차적이고 점층적이다. 제3단락에서는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을 보여준다. 이 삶은 제2단락에서 시험적인 관찰자로 농가의 일에 동참한 것에 비해 그 정도가 점층되어 있고, 동참을 청유받은 입장에서 선도하는 입장으로 점층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는 제1단락, 제2단락, 제3단락 등의 단락의 차원에서 순차적/점층적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다.(제2단락과 제3단락의 내부에 포함된 순차적/대칭적 구조까지를 계산하면, 이 텍스트의 논리는 단일구조가 아니라 복합구조이다.)

이런 이 텍스트의 논리적 구조로 보면, 이 텍스트에서 시적 화자는 농가의 일을 선도하게 되는 3단계의 삶을 노래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텍스트의 주제는 [향촌사족의 시적 화자가 농가의 일을 선도하게 되는 3단계의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원풍+춘하추동+신오석> 텍스트는 배경시간의 구조, 논리적 구조, 주제 등을 갖는다. 이는 이 텍스트가, 앞장에서 살핀 <원풍> 텍스트, <춘하추동> 텍스트, <신오석> 텍스트 등과 함께 대등하게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한 작품이 네 텍스트로 수용되는 것은, 하나의 텍스트로만 수용되는 상당수의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는 이 작품의 특성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배경시간의 구조와 작품의 성격에서 주로 검토되어온 <전가 팔곡>을, <원풍> 텍스트, <춘하추동> 텍스트, <신오석> 텍스트, <원풍+춘하추동+신오석> 텍스트 등으로 나누어, 각 텍스트들의 세 구조(배경

시간의 구조, 배경공간의 구조, 논리적 구조, <원풍> 텍스트의 경우는 배경시간, 배경공간)와 주제를 검토해 보았다. 그 중요한 것들을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원풍> 텍스트의 배경시간, 배경공간, 주제 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배경시간은 처사로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시화)연풍[時和年豐]을 원하며 살던 때이다.(이 때는 이휘일이 저곡으로 이주한 1661년과 1662년으로 추정된다.)

2) 배경공간은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처사적 삶을 사는 공간(농촌)이다.

3) 주제는 [농촌에 살지만,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시화)연풍을 원하는 처사적 삶]이다.

<춘하추동> 텍스트의 구조와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제2수와 제5수의 '집'의 대칭표현은, 제2-5수의 대칭적 구조를 암시하며, 암시한 대칭적 구조와 더불어, 제2-5수의 단락성(단락의 구획성)과 <춘하추동> 텍스트의 독립성을 보여준다.

2) 배경시간은 춘하추동의 순차적 구조이다.(이 1년은 1663년으로 추정된다.)

3) 배경공간은 집(제2, 5수)과 밭(제3, 4수)의 전후가 대칭하는 대칭적 구조이다.

4) 논리적 구조는 제2-5수에서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공통으로 하면서, 농인으로부터 농가의 일에 동참할 것을 청유받은 것(제2수)과 농가의 일에 동참할 것을 결의 종사하겠다고 다짐한 것(제5수)이 대칭하는 대칭적 구조이다.

5) 주제는 [향촌사족의 시적 화자가 농인으로부터 농가의 일에 동참할 것을 청유받고, 사시의 농가의 일에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하여 만족감

을 느끼고, 농가의 일에 결의 종사할 것을 다짐하는 삶]이다.

<신오석> 텍스트의 구조와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제6수와 제8수의 ‘-나다’와 ‘가자스(/스)라’ 각각의 대칭표현은, 제6-8수의 대칭적 구조를 암시하며, 암시한 대칭적 구조와 더불어, 제6-8수의 단락성(단락의 구획성)과 <신오석> 텍스트의 독립성을 보여준다.

2) 배경시간은 신오석의 순차적/대칭적 구조이다.(이 때는 이 작품을 지은 1664년의 농번기로 추정된다.)

3) 배경공간은 집에서 밭으로 나아가는 공간, 때맞춰 점심을 준비하게 시식하는 집의 공간, 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공간 등으로 구성된 대칭적 구조이다.

4) 논리적 구조는 즐거움을 수반한, 밭에 함께 나아가기의 청유를 통해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제6수, 신), 즐거움을 수반한 때맞춘 점심을 준비하게 하기를 통해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제7수, 오), 즐거움을 수반한, 집으로 함께 돌아가기의 청유를 통해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제8수, 석) 등이 보이는 순차적/대칭적 구조이다.

5) 주제는 [향촌사족의 시적 화자가 농번기의 신오석에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이다.

<원풍+춘하추동+신오석> 텍스트의 구조와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제5수와 제7수에 포함된 ‘-리 -여’, ‘-여스라’, ‘-리라’ 각각의 대칭표현과, 제4수와 제8수에 포함된 ‘무슴 흐리오’의 대칭표현은 춘하추동(제2-5수)과 신오석(제7-9수)을 한 단위로 묶고, 제1수와 제8수에 포함된 ‘이 中의’의 대칭표현은 춘하추동과 신오석이 묶인 단위와 원풍(제1수)을 한 단위로 묶어, <원풍+춘하추동+신오석> 텍스트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2) 배경시간은, 처사로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시화)연풍을 원하며 살던 때(제1단락), 농가의 일에 참여할 것을 청유받고,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결의 종사를 결심하던 때(제2단락, 춘하추동의 순차적/대칭적 구조),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때(제3단락, 신오석의 순차적/대칭적 구조) 등으로 구성된 순차적/점층적 구조이다. 이 배경시간의 구조는, '신오석'이 '춘하추'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질서와 균형이 잡힌 순차적/대칭적 구조(춘하추동춘하추)를 함축한다.

3) 배경공간은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처사적 삶을 사는 공간(농촌)(제1단락),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한 농가의 일의 공간(제2단락),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공간(제3단락) 등의 순차적/점층적 구조이다.

4) 논리적 구조는, 농촌에 살지만, 농가의 일에 종사하지 않고, (시화)연풍을 원하던 처사적 삶(제1단락: 제1수), 농인으로부터 농가의 일에 동참할 것을 청유받고, 사계절 동안 시험적인 관찰자로 동참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마지막에 결의 종사하겠다고 다짐하던 삶(제2단락: 제2-5수, 순차적/대칭적 구조), 농가의 일을 선도하는 삶(제3단락: 제6-8수, 순차적/대칭적 구조) 등의 세 단락의 차원에서 순차적/점층적 구조이다.(이 텍스트에서의 구조는 세 단락의 내부에 포함된 구조들까지를 계산하면, 단일구조가 아니라 복합구조이다.)

5) 주제는 [향촌사족의 시적 화자가 농가의 일을 선도하게 되는 3단계의 삶]이다.

이렇게 <전가팔곡>에서 세 텍스트들은 각각 독립된 구조(<원풍> 텍스트의 경우는 배경시간과 배경공간)와 주제를 갖는 동시에, 함께 통합된 구조와 주제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이 네 텍스트들은 각각 수용될 수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작품의 구조와 주제가 갖는 시가사적 의미를 검토하지

못했다. 이는 이 작품의 전후에 있는 유관 작품들의 구조와 주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전제들을 검토한 이후의 과제로 돌린다.

참고문헌

- 이휘일, 『존재집』, 『한국문집총간』 124, 민족문화추진회, 1993, 1-101쪽.
- 권순희, 『전가시조의 미적 특질과 사적 전개 양상』, 박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0, 1-157쪽.
- 권정은, 『자연시조의 구성공간과 지향의식』, 박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1-160쪽.
- 김사엽, 『규호시의방과 전가팔곡』, 경대논문집편집위원회, 『영서 고병간 박사 송수 기념논총』(『경북대학교 논문집』 4집), 경북대학교, 1960, 671-705쪽.
- 김상진, 『조선 중기 연시조의 연구: 사시가계, 오륜가계, 육가계 작품을 중심으로』, 박사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6, 1-182쪽.
- _____, 『조선 중기 연시조의 연구』, 민속원, 1997, 1-372쪽.
- 김석희, 『「독락팔곡」과 「전가팔곡」의 거리』, 박노준 외, 『고전시가 읽어읽기·하』, 태학사, 2003, 378-398쪽.
- 김신중, 『한국 사시가의 연구』, 박사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2, 1-149쪽.
- 김흥규, 『16·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어문논집』 35,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6, 215-242쪽.
- 송팔성, 『사시가의 자연관과 시간의식』, 석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 1-86쪽.
- 신영명, 『시골로 내려온 서울, 서울로 오르지 못한 시골』, 『시조학논총』 26, 한국시조학회, 2007, 77-91쪽.
- 양희철, 『연시조 종결의 표현 유형』, 『인문과학논집』 41,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0, 135-162쪽.
- _____, 『<고산구곡가>식 대칭표현형 연시조들의 유형성과 개별성』,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회, 2010, 169-200쪽.
- _____, 『대칭표현을 포함한 연시조들의 유형성: <도산육곡>식과 <방진산군수가>식의 대칭표현을 중심으로』, 『배달말』 64, 배달말학회, 2010, 87-112쪽.
- _____, 『<고산구곡가>의 구조 연구』, 『어문연구』 68, 어문연구학회, 2011, 283-310쪽.
- 여기현, 『강호인식의 한 양상』, 『반교어문연구』 1, 반교어문연구회, 1988, 139-157쪽.
- 이상원, 『17세기 시조 연구』, 박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8, 1-190쪽.
- 이현자, 『사시가계 연시조에 나타난 강호자연 인식』, 『시조학논총』 17, 한국시조학

회, 2001, 253-285쪽.

_____, 『조선조 연시조의 유형별 변이양상 연구』, 박사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1-189쪽.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1-606쪽.

_____, 『조선시대 영남지방 농민시의 세 층위』, 『민족문화논총』 1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207-215쪽.

_____, 『농민시의 세 층위』, 『한국시가의 역사의식』, 문예출판사, 1993, 1-426쪽.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편, 『中文大辭典』, 대북: 중국문화대학출판부, 1973.

ABSTRACT

On structure and subject in <Jeongapalgok>

Yang, Hee-cheol

This study looked upon background and subject in <Wonpung> text, and three structure and subject in three text(<Chunhachudong> text, <Sinoseok> text <Wonpung+Chunhachudong+Sinoseok> text) of <Jeongapalgok> in the aspect of deviant stylistics.

The result of study looked upon background and subject in <Wonpung> text is as follow:

1. We understood that background time is the years living but working in farm.
2. We understood that background space is the farm living but working.
3. We understood that subject is the hope of rich year

The result of study looked upon structure and subject in <Chunhachudong> text is as follow:

1. We understood sequential structure in background time
2. We understood symmetrical structure in background space
3. We understood sequential/symmetrical structure in logic.
4. We understood that subject is the determination participating in the farm living through the experimental living in farm.

The result of study looked upon structure and subject in <Sinoseok> text is as follow:

1. We understood sequential/symmetrical structure in background time and background space and logic.
2. We understood that subject is the leading living and the pleasure in the farm living.

The result of study looked upon structure and subject in <Wonpung+Chunhachudong+Sinoseok> text is as follow:

1. We understood sequential/climactic structure in background time and logic.
2. We understood that subject is three step which lead to the leading living and the pleasure in the farm living.

Key Words climactic structure, deviant expression, logical structure, sequential structure, symmetrical expression, symmetrical structure

논문투고일	: 2013. 09. 30
심사완료일	: 2013. 11. 16
게재확정일	: 2013. 11. 26